불황·개혁 한파 … 새내기도 안 뽑는다

■ 취업문 좁아진 '신이 내린 직장' 공기업

한전 공채 포기 … 주공·토공 채용 계획도 없어

공공부문 채용시장에 전례를 찾기 힘든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한파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바람과 정원 동결방침 등이 뒤엉키면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고용 한파 중심에 선 공공기관=지난 10월 취업자 증가폭은 정부 목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9만7천명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전체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거세지고 있다면 공공기관의 채용은 아예 얼어붙은 상태다.

공공부문도 예년이라면 지금이 정기공채시즌이겠지만 올해는 아예 신규채용을 포기한 공기업이 많다.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하반기 공채를 못했고 지난해 400명을 뽑았던 한국수력원자력과 각각 195명과 130명을 채용한 주택공사, 토지공사는 올해 채용계획이 없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고 상징성이 크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26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고 '신이 내린 직장'이란 명성 만큼이나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예년에도 공공기관 입사는 '좁은 문'이고 '바늘구멍'이라는 말로 비유됐지만 이번 가을에는 아예 '바늘구멍'조차 보이질 않을 정도여서 취업준비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내년 전망도 어둡다. 현재 실업률은 3.0% 수준이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실업률이 3.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시장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고 그 중심에 공기업들이 서있는 셈이다.

◇개혁 바람에 채용 '뚝' … 서로 '네 탓'=공공기관이 새 일꾼 선발을 주저하거나 포기한 데는 경기침체에 따른 불확실한 경영환경, 정부의 정원동결 발언,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정부나 노조에 대한 눈치보기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원이 아닌 정원 동결을 강조했고 필요하면 신규 인력도 뽑으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공기업 입장에서는 현원 동결로 해석하고 채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내년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총인건비 동결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악재가 되고 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총인건비를 동결한 만큼 정원 내에서라도 인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효율 10% 향상,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추진 중인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과 맞물려 내년 상반기 채용 전망까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통합하면 중복업무에 대한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조직을 개편할 경우 그 방안이 확정돼야 인력수요가 확정되는 만큼 현재로선 인력채용이 어렵다는 게 해당 공기업들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개혁과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부는 가운데 공격적인 채용에 나섰다가 자칫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공공기관들의 우려도 뒤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눈치보기가 심각하다.

/연합뉴스

기업 접대비 상향 50만 → 100만원

현재 50만원인 기업의 건당 접대비 한도가 내년부터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접대비'라는 명칭도 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대외업무협력비' 등 다른 것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업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문제를 심층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2004년부터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이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은 물론, 만난 사람과 접대목적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6.5%가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 쪼개기 등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국세청 홈피 휴대전화 번호 등록도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로 봉급쟁이들의 지갑도 얇아지고 있지만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세금은 어느 때보다도 두둑해질 수 있다.

소득공제 처리시점이 이듬해 1월로 옮겨지면서 올해만큼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 항목들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3개월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두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수취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그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귀속된다"며 "본인이나 가족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각각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를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자동응답전화(1544-2020)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 금융공황 없고 2년 뒤엔 경기 회복"

삼성硏 연구조정실장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정기영 연구조정실장(부사장)은 세계 금융공황의 전면적 확산은 없으며, 위기의 끝은 1~2년 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울산상공회의소가 삼성경제연구소,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마련한 제49차 울산경제포럼에서 정 실장이 발표한 '2009년 경영환경 전망' 주제강연 자료에 따르면 지금의 세계적 금융위기가 공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경기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격적 (경기) 회복은 빠르면 1~2년, 늦으면 2~3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이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부진한 경제실적과 대외불안,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의 요동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6%, 소비자 물가는 3.2%, 실업률은 3.2%가 예상된다"며 "다행히 국제유가 하락세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로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6억 달러 흑자가 전망되며, 환율은 1천40원대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또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대규모 위험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수법으로서,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수법) 부실화 위험이 증대되지만 대출규모가 작고 유동화 비율이 낮아 전반적인 금융부실로는 파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석유화학업종이 특히 중국 올림픽 이후 수요급감에 따른 고전이 예상되지만 다행히 유가급락으로 타 업종보다는 피해가 적을 것"이라며 "하지만 자동차는 미 자동차 3사의 유동성 위기와 업계 글로벌 구조조정 가능성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경기침체기에 우리 기업들은 충격 흡수에 필요한 유연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혁신을 통한 창조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불황기에는 긴축경영이라는 과거 공식에서 탈피해 역발상의 공격경영으로 2년 불황 후의 호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전국 떡 명장 다 모였네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2회 전국 떡 명장 선발대회에서 수상자들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사 3곳중 1곳 '적자'

주식시장 침체 … 거래 수수료 급감

주식시장의 침체로 증권사 3곳 중 1곳이 올해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내 증권사의 순이익이 외국계 증권사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물사의 순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 상반기(4~9월) 62개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8천713억원으로 작년 동기 2조5천702억원보다 66.1% 감소했다.

주식거래 부진으로 수탁수수료 수입이 1조원 이상 줄었으며, 주가 하락과 금리상승 여파로 증권사가 자체 매매로 얻은 이익도 작년 동기보다 8천900억원 이상 감소했다.

41개 국내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3천88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1% 감소한 반면 21개 외국계 증권사의 순이익은 8천713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증시 부진에도 외국계 증권사의 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거래가 늘어난 데다, 파생상품 매매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내외 62개 증권사 가운데 40곳이 흑자를 낸 반면 22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증권사별로 삼성증권(1천62억원), 우리투자증권(1천12억원), UBS(984억원), 모간스탠리(732억원), 골드만삭스(706억원) 등의 순으로 이익이 컸으나 한국투자증권(-971억원), 다이와(-209억원), NH투자증권(-136억원), 유진투자증권(-128억원) 등은 적자를 냈다. /연합뉴스

中企 대출 더 까다로워졌다

상당수 담보 요구·한도 줄어 … 정부 지원책 겉돌아

중기청, 업체·은행 관계자 조사

중소기업 상당수가 담보요구나 심사기준, 대출한도 등 은행의 대출여건이 전보다 더 악화됐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중소기업청이 지난 14일부터 중소기업 437개사와 은행창구 185곳에서 기업인과 은행담당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과거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56.8%로 줄었다는 응답 25.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중소기업의 자금 소요액은 대개 3억~4억원 수준이었으며, 자금의 용도는 대부분 원부자재 구입비 등 운전자금이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담보요구가 과거보다 많아졌으며(45.3%), 대출한도가 줄고(56.6%),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지는(56.6%) 등 대출여건이 종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주부터 중기청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은행들이 중기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지방청 중기청 직원들이 직접 은행창구에 나가 대출동향을 챙기는 '저인망식' 점검에 나섰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신규대출 29건, 만기연장 9건, 대출전환 2건, 꺾기해소 1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은행장이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은행에 종합적인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中企 절반 이상 "내년 연봉 동결"

업체 500곳 설문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연봉인상 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57.6%가 '동결'(53.2%) 또는 '삭감'(4.4%)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이유로(복수응답) 중소기업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45.8%),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41.7%) 등을 꼽았다.

한편 연봉협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회사의 재정상태'(38.6%)와 '직원의 성과'(25.8%), '경기 현황'(20.6%) 등이 지목됐다./연합뉴스

산재보험료율 0.15%P 인하

내년 사업주 부담 평균 보험료율 1.80%로

노동부는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1.95%(임금총액 기준)보다 0.15% 포인트 인하한 1.80%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낮춘 것은 2003년(2002년 대비 0.13% 포인트 감소)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04~2007년 매년 요율을 인상(2008년은 동결)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 최근 보험급여 지급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악화도 산재보험료율 인하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으로 총 61개 업종 가운데 건설업 등 54개 업종은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됐고 금융보험업 등 4개 업종은 동결됐으며, 채석업 등 3개 업종은 인상되게 됐다.

가장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의 36%나 됐고,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임금의 0.7%에 불과했다. 또 건설업은 3.4%, 기계기구제조업은 2.6%, 전자제품제조업은 0.8%, 조선업은 4.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1%로 각각 결정됐다. /연합뉴스

"4분기 무역수지 40억달러 흑자"

정부 경제상황점검회의 전망

정부는 23일 올해 4·4분기 무역수지가 4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무역수지 흑자전망에 근거해 환율안정과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고 총리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이 전했다.

조 실장은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수출경기가 악화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4분기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10월 12억1천달러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4분기 전체로 40억달러 무역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안정을 위해 국제수지 흑자기조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무역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해 국제수지 안정을 기하는 한편, 10월 평균 원유도입단가가 90달러 중반대에 달하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 소비절약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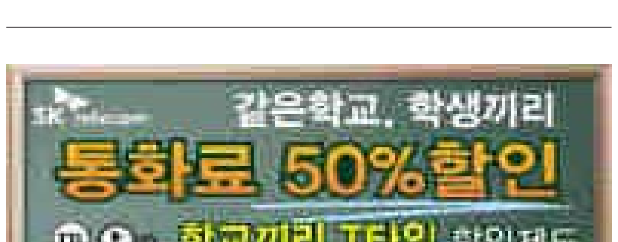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기아자동차 금호대리점	기아자동차 금호대리점 여사무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24	062-682-2560
한글과 컴퓨터 CQ교육사업부	[광주/전남] 컴퓨터 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5	062-373-5221
교보생명 FA Group	재무컨설턴트(FA) 및 부지점장(SM)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5	062-524-4183
㈜코리아텍	자동차부품 생산직 사원모집-광주 하남공단 7번도로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26	031-323-1667
시온테크	컴퓨터 설치, A/S 정규직	고졸/경력1년	1600~1800	11/26	016-650-4193
ING생명[본사]	광주본사직영 콜센터 공채 상담원모집(저축성 상품(재테크)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1/27	02-3452-2612
신한포토닉스㈜	회계결산 담당자	대졸/경력2년	1800~2000	11/28	062-949-7114
ok웨딩클럽 광주센터	[OK웨딩클럽 광주센터] 웨딩플래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8	062-223-0805
삼보컴퓨터서비스센터	사무/경리업무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1/29	062-971-3582
이문	디자이너(경력자우대)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29	062-225-9913
와이석면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산업)기사, 환경관련 학과 졸업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1/30	062-655-4404
㈜케이엔씨웰빙	매장관리, 상품안내 및 판매, 계산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2-530-0431
에스티에스㈜	토목직/토목계측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2-382-4058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로또복권 (제31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2 3 5 6 12 20		25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629,017,820	15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27,112,838	58
3	5개 숫자 일치	761,892	2,064
4	4개 숫자 일치	34,211	91,934
5	3개 숫자 일치	5,000	1,080,450

팝콘복권 (제135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2조	978311
2	1억	4조	851232
		2조	766064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30586
5	50만	각조	8051
6	2천	각조	95
		각조	86
		각조	23
7	1천	각조	3
		각조	0
		각조	9